

수렵인의 자연환경태도와 수렵참여 동기¹

최윤환² · 김성일²

Hunters' Attitude toward Natural Environment and Motivation for Hunting Participation¹

Yun Hwan Choi² and Seong-il Kim²

요 약

본 연구는 전형적으로 소모적 휴양활동인 수렵에 대한 참여동기와 수렵인의 자연환경태도를 평가하고 동기와 태도의 관련성을 규명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자연환경태도 척도를 구축하기 위해 1994년 4월 수원시민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총 380매의 설문과, 수렵면허를 구입한 수렵인을 대상으로 수렵참여 동기와 자연환경태도의 관련성을 규명하기 위해 동기와 태도, 만족을 묻는 총 148매의 유효설문을 수집하여 분석했다.

90개의 항목문항 중 최종적으로 선정된 26항목의 자연환경태도 척도를 이용하여 다섯 집단(수원시민, 수렵인, 3개의 대학생집단)에 대하여 태도 평가치를 비교 검증한 결과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발견하였으며 자연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수렵인 집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렵인의 수렵참여 동기는 '운동삼아서', '야외(산)를 좋아하므로'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인자분석을 통하여 8가지의 인자를 발견했다. 수렵인의 '수익성' 동기인자와 자연환경태도의 주된 항목인 '인류와 자연과의 관계성' 간에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는 자연을 경제적 이용추구 대상으로 인식할수록 자연환경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혼자만의 시간을 누리기 위해'라는 동기와 '자연환경의 필요성'에 대한 태도 간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는 자연환경을 대상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거나 자아 개발을 추구하려 할 때 자연환경을 더욱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태도를 갖는 것으로 판단된다.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collective aspects of hunting motivation and hunters' attitude toward natural environment. Data were collected from three different types of respondents : 148 hunters who purchased hunting license between November 1992 and March 1993 in Cholla Province, 120 university students and 260 Suwon residents.

The 26 items out of 90 items were selected to develop an attitude scale toward natural environment. Results of ANOVA revealed tha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five groups(hunters, urban residents and students from 3 major fields) in terms of their attitude values. Hunters' attitude value toward natural environment was the highest among five different types of respondents.

Two major motives for hunting participation are 'exercise' and 'like out-of-doors'. Factor analysis presents eight motivational dimensions underlying hunter's involvement in the activities : 1)stewardship, 2)social contact, 3)show-off, 4)sportmanship, 5)like to kill, 6)recreation/relax, 7)economic gain, and 8)being alone.

¹ 接受 1994年 9月 7日 Received on September 7, 1994.

² 서울대학교 산림자원학과 Seoul National University, Suwon, Korea.

The correlation between the motivational factor of 'economic gain' and the attitudinal item of 'relationship between man and nature' was negative ($r=-0.28$). There is a positive correlation ($r=0.24$) between the motivation of 'being alone' and the attitude of 'needs for natural environment'. These relationships indicate that individual's attitude value decreases when one perceives nature as economic goods, while it increases when one visits nature to relieve stress and to develop self-esteem.

Key words : Hunting, motivation for participation, environmental attitude

緒 論

자연자원을 대상으로 하는 휴양활동에 참여하는 인구는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그 증가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휴양활동은 가족단위로 한적하고 조용한 숲이나 계곡을 찾아가는 소극적인 활동은 물론, 스포츠 정신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적극적인 활동 등을 포함한다. 적극적인 휴양활동의 전형적인 예로써 수렵은 야생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일종의 스포츠로 파악될 수 있으며 다분히 소모적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김성일과 최운환, 1993).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에 수렵의 성행으로 말미암아 일부 조수류가 멸종위기에 처하게 된 1972년부터 1981년까지 10년간 제주도 상설수렵장을 제외한 전국 일원에 대하여 금렵조치를 취하게 되었고 이러한 조치 덕분에 그동안 야생조수의 서식밀도가 현저히 증가하게 되었다. (표 1) 1982년부터는 건전한 수렵의 육성과 외국관광객의 유치효과 등을 목적으로 강원도를 시작으로 매년 1개도씩 순환식의 유료 수렵장을 개설하게 되었다. 순환수렵장 이용자의 수는 1982년도에 1천명 미만에서 1992년도 전라남북도 순환수렵장의 경우 약 7천 5백명에 달하며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산림청, 1992).

수렵인구의 증가로 인한 야생동물의 감소와 그

에 따른 자연생태계 파괴에 대한 우려, 즉 수렵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자연생태적 문제에 대한 우려는 수렵이 그 활동의 특징상 소모적이라는 것을 고려해 볼 때 당연한 결과이다.

현대 우리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자연생태계적인 문제는 전통적인 가치, 태도, 신념의 변화로부터 발생된다고 보고 있다. Dunlap 등(1978)은 자연에 대한 개인의 긍정적인 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12항목의 NEP(New Environmental Paradigm) 척도(Scale)를 구성하며 특정 집단의 자연환경 태도를 파악하고 그것을 자연자원의 관리, 이용, 보호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산림자원을 포함한 자연자원을 대상으로 한 수렵 등의 휴양활동이 보다 건전하고 바람직한 활동으로 유도되기 위해 개인이나 특정 집단이 가지는 자연에 대한 태도를 측정할 필요가 있다.

수렵인의 수렵참여의 동기와 목적이 다양하기 때문에 과연 그들이 어떤 동기에 의해 수렵이라는 활동에 참가하는가에 대한 파악은 수렵장과 수렵인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 뿐만 아니라 보다 건전한 수렵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수렵인의 수렵참여 동기와 자연환경태도를 파악하는 연구는 수렵활동 그 자체가 내포하고 있는 여러 편익을 유지하면서 보다 자연환경적으로 건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자연환경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를 개발하며, 수렵활동참여 동기와 자연환경태도의 평가를 수행하고, 마지막으로 동기와 태도 간의 관련성 규명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文 獻 調 査

1. 수렵참여의 동기 및 태도

수렵은 인류역사와 함께 생존에 필수적인 기본

표 1. 일부 수렵동물의 연도별 서식 밀도

종 류	단위 : 마리/100ha			
	'82	'89	'92	'93
평	17.3	17.2	21.3	24.5
멧비둘기	22.0	20.7	25.6	30.3
멧 토끼	5.8	6.1	8.0	9.2
고라니	1.8	2.4	4.0	4.7
멧돼지	1.9	2.1	3.8	4.2

(자료 : 산림청, 1994)

활동으로서 추구되어 왔으며 근세에 들어 사냥감이라는 말은 생필품에서 휴양이나 스포츠로서의 활동대상으로 변해왔다. 미국의 경우 수렵 참여자들은 12세 이상 인구의 약 8%에 달하며 이들의 주된 참여목적은 사냥감을 “포획”하는 것이다(Burrus-Bammel 등, 1980).

Kellert(1975)는 동물에 대한 미국인의 태도를 조사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여러가지 견해를 자연순응적(naturalistic), 생태적(ecologicistic), 인간적(humanistic), 신성환(moralistic), 과학적(scientistic), 심미적(aesthetic), 자연지배적(dominionistic) 태도로 정의했다.

Burrus-Bammel 등(1980)은 야생동물에 대한 태도가 전반적으로 변화하는 시기인 1978년에, West Virginia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수렵동기 항목 중에서 가장 적절한 이유라고 평가되는 26가지의 항목을 선별하였다. 그들은 26개 항목 중 살상(the kill)이라는 한 항목에 대해 500의 값을 지정함으로써 심리적 등급 척도의 기준점으로 사용하였다. 조사는 190명의 수렵인(177명 남성, 13명 여성), 172명의 非 수렵인(96명의 남성, 76명의 여성), 33명의 反 수렵인(11명 남성, 22명 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수렵에 참여하는 6가지 대표적 동기는 ①야외를 좋아해서(like the out-of-doors), ②휴양과 여가(recreation and leisure), ③모험심(challenge-testing skill), ④자연학습(nature study and seeing animals), ⑤사격을 좋아해서(like to shoot), ⑥일상으로부터의 탈출(escape)이었으며 이 결과는 Potter 등(1973)에 의해 보고된 5가지 이유와 유사하였다. 비수렵인들은 수렵인에 의해 제시된 6가지 이유 중 4개로 정의되지만 이들의 값은 현저하게 낮았다. 반 수렵인들은 그 이유 중 3개로 정의되었으며 야생동물에 대한 평가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또한, 살상(500이라는 값)에 대한 값의 부여에서 수렵인들이 비수렵인들이나 반수렵인들보다 살상이라는 항목에 대해 중요도를 낮게 평가함을 알게 되었다.

최근의 수렵 연구로서 Backman과 Wright(1993)는 비참여 수렵인의 네 집단 즉, 수렵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비참가자(nonparticipants having a positive attitude toward hunting), 수렵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갖는 비참가자(nonparticipants having a negative

attitude toward hunting), 수렵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前참가자(former participants having a positive attitude toward hunting), 수렵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갖는 前참가자(former participants having a negative attitude toward hunting) 사이에 수렵참여에 따른 제약요소(barrier)의 차이와 동질성을 조사한 바 있다. 527명의 응답자에 대한 분석결과로 수렵참여에 대한 제약 인자로서 총 6가지, 즉 금전비용(monetary cost), 관심/선호(interest/preference), 접근/기회(access/opportunity), 신체적 노력(physical effort), 시간비용(time cost), 공유지 이용마찰(public land conflicts)을 들고 있다.

김성일과 최유환(1993)은 충청북도 순환수렵장을 이용한 수렵인으로부터 회수한 총 309부의 설문지의 16가지 동기항목을 인자분석한 결과에 의하여 수렵참여동기를 교육학습, 생활 변화, 수익성, 건강 그리고 휴양활동으로 정의한 바 있다.

위의 연구결과들은 수렵참여가 단순히 야생조수의 포획자체에만 의미를 국한시키지 아니하고 자연자원과 인간의 직접적인 접촉을 전제로 하는 폭 넓은 야외휴양 활동의 한 부분임을 밝혀주는 것이다.

2. 자연환경태도

자연환경 태도에 대한 연구는 최근에 들어와서 환경문제에 대한 해결대안으로 인간의 환경태도 변화를 주목하면서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분야이다. Richmond(1978)는 영국의 중등학교 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환경에 대한 지식과 태도를 조사하여 사실적 지식, 개념적 지식, 그리고 태도와의 관계를 규명하였다. 연구결과 환경에 대한 개념적 지식은 사실적 지식보다 태도와 강한 상관관계를 보여 긍정적인 태도의 발달을 위해서 환경에 대한 개념적 지식이 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

Hogan(1983)은 환경교육의 목표가 윤리성과 정의적인 영역에서의 성취와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 연구하였는데, 매우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할 때에 정의적인 성취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환경교육 시행시에 특히 가치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정의적인 교육에서 소집단 활동과 토의가 포함된 능동적인 학습활동이 전통적인 교사의 주입

식 학습보다 효과적이지만, 반-환경론자적인 입장을 같은 학생은 실제로 부정적인 태도를 발달시킨다는 것이다. 또한 야영교육 과정에 대한 연구는 긍정적인 태도를 발달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인 학습방법이라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자연환경태도 척도개발에 대한 최초의 종합적인 연구로서 Dunlap과 Van Liere(1978)는 자연에 대한 개인의 긍정적인 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12항목의 NEP(New Environmental Paradigm) 척도(Scale)를 개발하였다. 대부분 국가의 생태적 문제는 그 국가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전통적인 가치, 태도 그리고 신념으로부터 발생한다고 많은 연구자들이 언급하고 있다. Dunlap과 Van Liere의 연구는 최근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자연의 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개발 연구로서, 그들의 환경 척도 구성에 있어서는 먼저 총 1791명, 즉 환경단체의 표본집단(EOS)인 558명과 일반시민의 표본집단(GPS)인 1233명에게 우편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12개의 NEP문항은 4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환경문제, 즉 오염, 인구와 자연자원을 담고 있는 35개의 문항 속에 내포되어 있다. 이에 대한 자료의 분석은 빈도 분석, 두 표본집단에 대한 각 항목의 분산과 상관관계분석을 통해 최종 12개 항목을 선정하였다. 그 후 Noe와 Snow(1990)에 의해 NEP 척도는 국립공원 방문객들에게 설문조사하여 척도의 타당성이 검증된 바 있다.

研究方法

수렵인의 자연환경태도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우리나라 국민의 일반적인 자연환경태도를 조사할 수 있는 항목을 개발하는 것이 우선되었다. 1993년 12월말부터 시작한 자연환경태도에 대한 항목수집은 Stankey(1971)의 Purism 척도와 Dunlap 등(1978)의 NEP 항목과 서울대학교 농

업생명과학대학 학생을 대상으로 개방형 설문을 통해 얻은 항목 그리고 신문, 잡지 등에서 환경과 관련된 기사에서 채택한 환경진술 등을 포함하여 성별, 연령, 소득 등 항목의 총 93개의 변수 문항으로 설문의 초기형태를 구축하였다. 문의 초기형태를 구축하였다.

위 항목 중에서 최종 항목을 구축하기 위하여 대학생에 대해 130부, 수원시민들을 대상으로 130부를 조사하였다. 학생들은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의 대학생과 대학원생 그리고 충북대학교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하였고, 수원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는 수원시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인구의 비율에 따라 각 행정 區마다 설문 조사량을 정했다. 각 행정 구마다 무작위로 선정된 9개의 동에서도 인구 비율에 따라 조사량을 세분하였다. 1994년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실시된 조사에 의해 수집된 자료들에 대하여 통계 프로그램인 SPSS/PC를 이용하여 상관관계와 신뢰도 검증을 거쳐 인자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항목에 대한 신뢰도 분석은 Alpha 모델을 사용하였는데, Alpha 모델은 Cronbach's α 값과 표준화된 값을 측정하는 것이다(Cronbach, 1951).

신뢰성 분석과 상관분석을 통하여 확정된 최종 항목인 자연환경태도 척도와 수렵참여 동기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수렵참여 동기 항목 26개, 자연환경태도 항목 26개, 수렵만족에 대한 항목 26개, 연령, 학력, 직업, 소득, 거주지, 등을 포함하여 총 85문항의 설문지가 최종적으로 구성되었다.

1994년 4월부터 5월말까지 전라남북도에 수렵허가를 등록한 수렵인의 주소를 근거로 계통적 추출법에 의하여 수렵인 400명이 최종적으로 선발되었고 이들에게는 Dillman(1978)이 제시하는 수차례에 걸친 우편설문 발송기법을 응용하여 응답에 대한 회신율을 높였다(표 2). 이 방법은 설

표 2. 설문조사 현황

	표본의 성격	표본수(명)	수집일자	조사방법	응답자(명)
자연환경	일반시민,	260	1994. 4. 1-4. 17	가호방문	260
척도구성	대학생			개별면접식	
척도의	대학생	120	1994. 5월	개별면접식	120
타당도검증					
동기와	수렵인	400	1994. 4월-5월	우편설문	148
타도관련성					

표 3. 최종 선정된 자연환경태도 항목

환경에 대한 태도항목	척도와 항목간 상관계수	항목 하나가 없어질 때의 α 값
1. 자연자원의 파괴를 생각해서 미리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3361**	.8352
2. 산림파괴 예상지역은 입산을 금지해야 한다	.3921**	.8341
3. 환경문제에 대하여 환경단체와 대국민 홍보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4136**	.8324
4. 자연자원은 우리의 정서나 시각에서 볼때 매력적이다	.5943**	.8253
5. 자연 대상은 관찰/관망 외에도 많은 것을 느낄 수 있다	.4210**	.8322
6. 자연공원에서 휴양을 통해 얻는 구체적 만족감은 크다	.4615**	.8310
7. "자연보호/환경보호"라는 말은 모든 인류에게 필요하다	.5313**	.8286
8. 자연은 귀중한 유산이므로 보존해야만 한다	.3909**	.8330
9. 인간이 자연을 파괴하면 비참한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4485**	.8313
10. 생존하기 위해서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살아야 한다	.3894**	.8331
11. 지구는 한정된 방과 자원을 지닌 우주선과 같다	.4178**	.8331
12. 나는 숲이나 다른 자연환경을 찾음으로써 활기를 얻는다	.6188**	.8247
13. 야생동물도 자연환경의 건강에 큰 역할을 한다	.4025**	.8329
14. 인류는 자연환경을 심하게 해치고 있다	.4539**	.8315
15. 나는 항상 자연에 대한 고마움을 느낀다	.4174**	.8332
16. 자연 속에서 야생동물의 관찰은 인간에게 반드시 필요하다	.4637**	.8313
17. 실내에 있으면 가끔 밖의 자연환경에 참여하고 싶다	.5177**	.8292
18. 자연환경은 휴식과 안정을 위해서 필요하다	.3966**	.8332
19. 자연은 학문과 탐험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4944**	.8296
20. 인류는 마침내 자연환경으로 돌아간다	.4015**	.8332
21. 나는 자연환경 속에서 창조적 생활을 구상한다	.4908**	.8298
22. 나는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자연환경을 찾는다	.4981**	.8312
23. 자연환경은 청소년 교육에서 과학/기술보다 중요하다	.3831**	.8352
24. 자연휴양지 이용시 다른 휴양객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3495**	.8350
25. 동식물이 많은 곳은 천연보호구로 지정하여 보호해야 한다	.4337**	.8325
26. 인간의 복지를 위한 개발사업 시 자연보호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	.5228**	.8285
N=254	alpha=	.8370

문지와 표제, 우편엽서, 그리고 응답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재차 설문지를 보내는 순으로 회수율을 높이는 방법이다.

結果 및 考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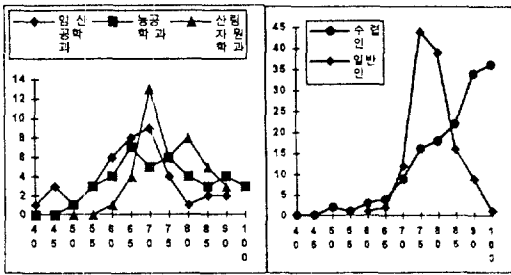
1. 자연환경태도의 척도구성

각 태도항목과 척도간의 상관관계를 검토한 후 크론바흐의 알파통계를 이용한 신뢰도 분석이 수행되었다. 신뢰도 검증은 척도의 신뢰도 값(Cronbach's α)을 심각히 낮추는 항목을 우선적으로 제거하여 자연환경태도 척도의 신뢰도 값이 극대점에 이르는 수준까지 이르도록 하는 것이다. 위의 절차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총 90항목 중에서 최종적으로 26개 항목이 선정되었다(표 3). 26개의 항목에는 Stankey(1971)의 Purism scale에서 채택한 7개 항목 중 1개, Dunlap 등(1978)의 NEP에서 채택한 12개 항목

중 4개의 항목이 포함되었다. 구축된 26가지의 자연환경태도 항목은 상관관계에서 $p < 0.001$ 에서 유의한 18개 항목을 포함하고 있고, $p < 0.01$ 에서 유의한 2개 항목을 포함한다. 나머지 6개 항목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척도와의 상관관계는 26개의 항목 모두가 $p < 0.001$ 에서 유의하였으며, 크론바흐의 알파값은 0.8370으로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자연환경의 척도구성을 위한 총 표본 수는 260명으로 각 항목 중 무응답 항목이 있는 6명의 자료는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2. 집단간 태도평가치 차이분석

그림 1은 5집단(학생 3집단, 수렵인, 일반시민)에 대한 자연환경태도 평가치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정규분포의 모양과 흡사한 대학생들의 자연환경태도 평가치 분포에서 임산공학과 농공학을 전공하는 학생집단보다 산림자원학과 학생집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수렵인과 일반인들



X축=태도평가지 Y축=빈도

그림 1. 자연환경태도 평가치 분포 곡선

표 4. 집단간 태도평가지의 비모수 분산분석

집 단	평균평가지	χ^2	p
수 령 인	251.95	78.52	0.000
임산공학과학생	105.78		
농공학과학생	130.89		
산림자원학과학생	197.14		
일 반 시 민	177.18		

간의 자연환경태도 평가치는 현저한 차이를 볼 수 있다. 수렵인들은 높은 점수에 집중되는 특이한 분포를 보이며, 일반인들은 정규분포를 따르지만 환경태도 평가치가 75에서 80에 집중되고 있다. 수렵인 집단은 다른 4집단을 보다 자연에 대한 태도가 상대적으로 긍정적임을 알 수 있다.

다섯 집단의 평가치에 대한 정규성검토를 콜모고로프-스미노프(K-S Z) 기법으로 검증한 결과 수렵인 집단의 평가치는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집단별 자연환경태도 평가치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정규분포를 가정하지 않고 실시할 수 있는 비모수 검증을 실시하였다(표 4).

그림 2는 다섯 집단의 환경태도 평가치에 대해 독립표본에 대한 비모수 일원배치 분산분석 결과이다. 크루스칼-월리스(k-w)검증을 실시한 결과 수렵인 집단과 임산공학과 집단은 집단별 평균이 계산된 후 카이사승 값이 36.70, 유의도가 0.0으로 산출되었다. 따라서 수렵인 집단과 임산공학과 집단은 환경 태도 평가치의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수렵인 집단과 농공학과 집단 간(카이사승값이 26.24, 유의도가 0.0), 수렵인 집단과 산림자원학과 집단 간(카이사승값이 9.85, 유의도가 0.0017), 수렵인 집단과 일반시민 간(카이사승값이 38.84, 유의도가 0.0)에서도 역시 각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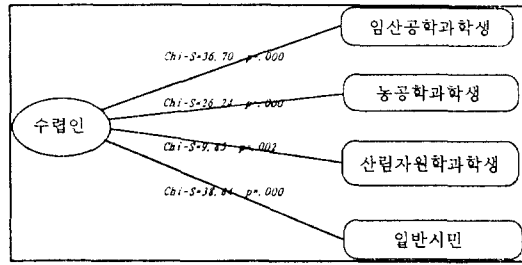


그림 2. 수렵인과 각집단별 태도평가지 차이

표 5. 수렵인의 수렵참여 동기측정치

수렵참여동기 항목	평균	순위
운동 삼아서	4.59	1
야외(산)을 좋아하므로	4.49	2
사냥 자체가 좋아서	4.22	3
사격하는 것이 좋아서	4.14	4
남자다운 스포츠이므로	4.06	5
휴양활동을 위해	3.93	6
단조로운 일상생활의 변화로	3.46	7
자연을 탐구하고 관찰하기 위하여	3.34	8
친선활동(친목도모)를 위하여	3.01	9
능력에 도전 시험하기 위하여	2.58	10

* 각 동기항목은 5점 만점으로 측정됨

환경태도 평가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수렵인 집단은 다른 집단에 비해 자연환경태도 평가치가 높아 자연환경에 대해 상대적으로 호의적이거나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3. 수렵인의 수렵참여동기와 자연환경태도

수렵인의 수렵참여 동기를 중요도 순으로 보면 '운동삼아서', '사냥자체가 좋아서', '야외(산)를 좋아하므로', '사격하는 것이 좋아서', '남자다운 스포츠이므로'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표 5). 이는 복잡한 산업사회에서의 탈피, 멋 등의 산림휴양적인 목적이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목적 보다 강함을 알 수 있다. 최근 수렵이 스포츠로서의 취미생활이 다분히 내포되어 있다는 의미로서, 휴양활동을 위해선 보다 적극적이고 자연과 더불어 있다는 그 자체로서 수렵에 참여하게 된다고 추론할 수 있다.

수렵참여 동기의 중요도에 따라 어떤 잠재적인 인자구조가 성립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26가지의 수렵참여 동기 항목으로 인자 분석을 실시하여 수렵에 참여하는 동기의 주요 구성 인자를

표 6. 수렵인의 수렵참여 동기 인자분석

동기항목	인자적재량	아이겐값	백분율	누적백분율
인 자1 :		4.80417	18.5	18.5
야생동물 관리를 위해	.85939			
해로운 동물을 없애려고	.74935			
생태계 조절을 위해	.71408			
자연을 탐구하고 관찰하기 위해	.57329			
인 자2 :		3.10362	11.9	30.4
친선활동(친목도모)를 위해	.79599			
친구를 사귀려고	.79257			
가족이 함께 즐기기 위해	.60692			
모험심에서	.44079			
인 자3 :		1.92843	7.4	37.8
운동삼아서	-.76520			
수렵장비(자랑)때문에	.67399			
야외(산)을 좋아하므로	-.66467			
식량이 필요해서	.54120			
인 자4 :		1.76175	6.8	44.6
사격하는 것이 좋아서	.68775			
남자다운 스포츠이므로	.62458			
사냥자체가 좋아서	.62078			
동료들의 권고 때문에	-.58986			
최상의 동물을 잡기 위해	.37337			
인 자5 :		1.37114	5.3	49.9
야생동물을 먹기 위하여	.77314			
동물을 살상하고 싶어서	.63117			
사냥개의 훈련을 목적으로	.45174			
인 자6 :		1.26065	4.8	54.7
단조로운 일상생활의 변화로	.81697			
휴양활동을 위해	.48571			
능력에 도전 시험하기 위하여	.41732			
인 자7 :		1.12166	4.3	59.0
상품결린 게임으로	.73666			
동물의 모피를 얻기 위하여	.51984			
인 자8 :		1.06448	4.1	63.1
혼자만의 시간을 누리기 위해	.88453			

분류하였다. 인자 구조를 설명하는 결과는 표 6과 같다. 전체 변량 중에 이들 인자군의 설명력은 63.1%를 나타내고 있으며 36.9%는 오차변량과 특수변량이다.

인자분석을 통하여 얻어낸 요인별 각 항목을 살펴보면 고유치가 1이상인 8가지의 인자군이 설명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수렵참여 동기에 잠재적인 근거를 이루는 인자는 「자연자원의 관리」동기를 인자 1, 「사회적 접촉」동기를 인자 2, 「과시」동기를 인자 3, 「남성의 스포츠」동기를 인자 4, 「사냥욕구」동기를 인자 5, 「휴양/휴식」동기를 인자 6, 「수익성」동기를 인자 7, 마지막으로 「고

적감」라는 동기를 인자 8이라고 해석하였다. 이는 김성일과 최운환 (1992)의 연구에서 나타난 「교육/학습», 「생활변화», 「수익성», 「건강», 「휴양활동」 등의 수렵참여 동기인자들과 다소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수렵인의 수렵참여 동기와 자연환경태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동기인자의 인자값(factor score)과 태도항목의 값의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표 7). 분석결과 동기인자 1, 5, 7만이 소수의 태도항목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갖고 있을 뿐 나머지 인자들과 태도항목 간에는 뚜렷한 관계가 발견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7. 동기인자값과 태도항목 간의 상관계수

태도	동기인자1	인자2	인자3	인자4	인자5	인자6	인자7	인자8
항목 1	-.08	-.26**	-.03	-.17	-.07	.12	-.12	-.13
항목 2	.09	-.10	-.06	-.06	-.06	-.11	-.07	-.00
항목 3	-.03	-.18	-.00	-.15	-.10	-.03	-.12	-.11
항목 4	.10	-.05	.27**	.02	.07	.19	-.00	-.09
항목 5	.07	.05	-.02	-.03	.04	.12	-.06	-.15
항목 6	.08	-.01	.07	.05	.03	.07	-.06	-.15
항목 7	-.02	-.13	-.02	-.10	-.05	.07	-.26**	-.04
항목 8	.04	.04	-.00	.04	.07	.15	-.02	-.04
항목 9	-.09	-.06	.02	-.06	-.11	-.00	-.09	-.07
항목10	-.16	-.11	.01	-.10	-.20*	-.05	-.23*	-.02
항목11	-.21*	-.10	.01	-.06	-.17	.09	-.22*	.05
항목12	.06	.03	.16	.09	-.01	.10	-.13	.00
항목13	-.07	-.05	-.03	-.07	-.10	.09	-.14	.05
항목14	-.00	.01	.06	-.01	-.00	.16	-.04	.08
항목15	-.11	-.08	.12	-.05	-.14	-.01	-.20*	-.02
항목16	.00	.03	.03	.03	-.06	.05	-.23*	.00
항목17	-.12	-.18	-.00	-.12	-.20*	-.05	-.23*	.06
항목18	-.18	-.13	-.07	-.10	-.20*	-.06	-.26*	.09
항목19	.18	-.19	-.00	-.10	-.04	.08	-.07	.10
항목20	-.22*	-.03	.01	.09	.04	.00	-.06	-.02
항목21	.13	.02	-.02	-.04	-.00	.19	-.03	.07
항목22	.04	.00	-.03	.03	.04	.15	-.03	.31**
항목23	-.00	.01	-.06	-.03	-.00	.03	-.21*	.07
항목24	-.04	.04	.06	.09	.07	.03	-.02	-.07
항목25	-.26**	-.13	-.08	-.06	-.14	.02	-.26**	.12
항목26	-.25*	-.11	-.12	-.08	-.17	-.00	-.32**	.07

* : p<.01,

** : p<.001

과라서 예상되었던 동기와 태도의 관련성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단지 몇가지 흥미로운 해석이 가능하였다. 동기 인자 7(수익성)은 26개의 태도 항목 중 '자연보호 환경보호는 모든 인류에게 필요하다', '동식물이 집단적으로 산출되는 곳은 천연보호구로 지정하여 보호해야 한다' 등의 항목에 상관이 있다고 나타났다. 이는 동기 항목 중 수익성 인자로 묶여지는 '수렵인이 상품결린 게임으로', '동물의 모피를 얻기 위하여'라는 것을 볼 때, 수렵인들이 자연을 경제적 이용추구 대상으로 인식할수록 자연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 즉, 개발위주의 태도를 보인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혼자만의 시간을 누리기 위해서'라는 동기로 수렵활동에 참여하는 수렵인이 상대적으로 자연보호를 강조하고 자연에 대한 고마움을 갖는 태도를 보인다고 판단할 수 있다.

結 論

본 연구는 보다 건전한 수렵휴양의 경험을 제공하고 휴양자원의 관리 보호를 위한 자연관리 대안 개발의 기초적인 연구이며, 인간의 자연에 대한 태도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도구의 개발에 관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 결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1. 자연환경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구성은 90개의 항목문항 중에서 26개의 항목을 최종적으로 선정하였다. 자연환경 척도의 타당도 검정으로 다섯 집단(수렵인, 일반시민, 전공별 학생집단)에 대한 평가치를 비교 검증한 결과 집단별 자연환경태도가 다르게 나타났다. 자연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자연환경태도 평가치는 다섯 집단 중 수렵인의 자연환경태도 평가치가 가장 높았다. 이는 수렵인 집단이 다른 집단들보다 자연환경적으로 건전

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2. 수렵인의 수렵참여 동기는 「운동삼아서」, 「아쉬(산)를 좋아하므로」, 「사냥자체가 좋아서」, 「남자다운 스포츠이므로」 등의 중요도 순을 보였으며 태도와외 관계에서 중요한 변수인 동기 인자는 「자연자원의 관리」, 「사회적 접촉」 등 8가지 였다. 수렵인의 자연환경 태도는 「자연은 귀중한 유산이므로 보존해야만 한다」가 가장 높은 중요도를 보였다. 예상되었던 동기외 태도의 관련성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단지 몇가지 흥미로운 해석이 가능하였다. 수렵인들은 자연을 경제적 이윤추구 대상으로 인식할수록 자연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 즉, 개발위주의 태도를 보인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혼자만의 시간을 누리기 위한 동기로 수렵에 참여하는 것은 자연환경을 더욱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引用文獻

1. 김성일, 최운환. 1993. 수렵참여 실태 및 수렵인 특성에 관한 조사. 임업경제, 창간호 : 35-44.
2. 산림청. 1992. 수렵자료. 보호과
3. 산림청. 1994. 수렵자료. 보호과
4. Backman, S.J. and Brett A. Wright. 1993. An Exploratory study of the relationship of attitude and the perception of constraints to hunting. J. of Park and Recreation Administration 11(2) : 1-16.
5. Burrus-Bammel, L.L., Gene Bammel and Kimberly Gallo. 1980. Perceptions of hunting and hunters. In proceedings of the wilderness psychology group annual conference. p.253-263. West Virginia.
6. Cronbach, L.J. 1951. Coefficient alpha and the internal structure of tests. Psychometrika 16 : 297-334.
7. Dillman, Don A. 1978. Mail and telephone surveys. A Wiley-Interscience Publication. New York. 325pp.
8. Dunlap, R.E. and Kent D. Van Liere. 1978. The "new environmental paradigm". Journal of Environmental Education 9(4) : 11-19.
9. Hogan, C.F. 1983. A curriculum framework at work an analysis of environmental education guideline for schools produced by the curriculum developement centre. Unpublished M. Ed. paper, Flinders University.
10. Kellert, S.R. 1975. A Study of American attitude towards animals. A report to the Fish and Wildlife Service of the USDA.
11. Noe, F.P. and Rob Snow. 1990. The new environmental paradigm and further scale analysis. J. of Environmental Education 21(4) : 20-26.
12. Richmond, J.M. 1978. Some outcomes of an environmental Knowledge and attitude survey in England Research in Science Education, 5 : 261-268.